

歐洲思想의 由來 (四)

저자 미상

第一章 세리사 思想 (續)

(二) 藝術的特徵 (續)

씨리사 文化의 內容은 極히 複雜하나 씨리사는 有史 以來 第一位로써 見稱하는 文化國이라. 그리하여 此等 複雜한 文化의 根本內容을 成한 것은 實로 씨리사人의 藝術的 天才이라 謂할지니, 吾人은 玆에 彫刻, 建築, 繪畫, 文學, 詩歌 等에 現出한 씨리사 思想의 具體的 內容을 一々히 綿密히 觀察할 餘地를 有하지 못하얏도다. 그러나 今日 吾人이 씨리사人의 思想 感情에 就하여 知得한 所以는 專히 此等 藝術品을 學함에 因함이라. 今日까지 遺存한 씨리사 藝術은 가장 具體的으로 씨리사人의 思想 感情을 傳하얏스니, 몬저 씨리사 文化의 淵源으로 見할 만한 神話는 直接 最古의 씨리사人의 藝術의 才幹의 發現으로 觀할지니, 此等 古代의 씨리사人에 在하야는 他 古代 民族의 地位와 同히 自然界의 一切事物은 다 善美한 生命을 具備한 靈妙한 活物이며 活體이오 山川草木은 다 美妙한 動作을 具備한 靈體이니, 美妙한 한 諸神은 同히 此와 如한 靈妙한 活物 쏘는 活體에 不外한지라. 宇宙萬象이 徹頭徹尾 此와 如한 美妙한 諸神에 支配됨으로 觀한 곳에 씨리사人의 熱烈한 樂天的 兼 宗教的 傾向이 存하며, 宇宙를 混沌한 無秩序 無規律의 體로 觀하지 안이하고 아모쪼록 秩序整然한 尊貴善美한 現實體로 觀한 곳에 古代 씨리사人의 確信이 存하니, 彼等の 藝術的 天才는 어디까지든지 無秩序한 것에 一定한 秩序를 與하고 混沌한 것에 整然한 規律을 授함이라. 故로 此點으로부터 觀하면 古代 씨리사의 哲學이 或은 타레스[탈레스]와 如히 水로써, 或은 아나크시멘스[아낙시메네스]와 如히 空氣로써, 或은 헤라크리도스[헤라클레이토스]와 如히 火로써 各々 宇宙의 構成元素로 觀함과 더욱 此等の 構成元素가 各々 靈妙한 느스(理)에 依하야 支配됨으로 觀함은 그 根柢에 在하야는

통히 씨리사인의 藝術的 直觀의 發現이라고 解釋할지라.

就中 有名한 古代哲學의 一派(피타코라스學派를 始祖로 한 學派)가 萬有는 純然한 數와 數的 關係로부터 成함으로 觀察하여, 幾何學的인 音樂的인 規律 整然한 體가 卽 萬有이라고 解釋한 것은 씨리사인의 思想 感情을 가장 顯著한 形式으로 發表한 것이라. 勿論 古代 씨리사人이라도 人生의 不幸이나 災害에 對하여 全히 盲目이 안이오 各樣의 無秩序한 罪惡에 就하여야는 彼等은 도리어 銳敏한 感能을 具備하였으나, 此等 無秩序한 諸惡諸罪도 結局은 一層 大天地의 正義 쏘이스의 神으로 因하여 征服되는 것이니, 全體 上에는 가장 嚴肅한 因果應報가 支配한다 함이 彼等の 根本的 信仰이라. 에스키로스, 소포크레스 等の 劇詩는 가장 具體的으로 此種類의 根本信仰을 歌한 것이니, 此等 詩人들이 遺存한 宿命觀—人生의 行爲는 가장 嚴正한 法則에 支配된다 하는 宿命觀—은 畢竟 嚴正한 因果應報의 思想에 不外하니라.

此와 如히 씨리사 藝術의 特徵은 近代의 藝術이 顯著히 無涯岸混沌—甚하면 醜惡함에 對하여 가장 大設備의 形式으로 秩序整然한 壯嚴奧妙의 趣를 示한 點에 在하다 謂일지니, 後世의 所謂 古典藝術의 特徵은 대개 씨리사 藝術의 精神에 不外하니라.

(三) 科學的 特徵

前段에 概說함과 如히 씨리사人은 特殊한 象徴的 傾向을 具備하여 顯著히 藝術的이었으나, 此同一 根本的 特徵은 更히 씨리사 精神의 別種인 特質과 極히 密接한 關係를 有하였스니, 別種의 傾向이란 無他이라. 씨리사 精神이 一般으로 가장 顯著한 意味에 在하여 智識的이오 理論的이오 科學的이라 함이 是이라. 藝術的임과 並하여 씨리사 文明이 또 顯著히 主智的임은 씨리사를 研究하는 者에 對하여야는 가장 明白한 事實이라. 古來 씨리사人과 如히 知識 또는 知慧를 尊重히 한 民族은 他에 比類가 無하여 知慧의 尊重은 씨리사人의 天性임으로 싱각되니, 씨리사 민족의 特殊인 主智的 傾向을 明確히 하고저 함에는 吾人은 몬저 東洋의 知識的 傾向과 全히 意趣를 異케 한 西洋式 智的 傾向에 注意하지 안이하면 안이 될지라. 東洋과 가령 支那 印度에 在하여도 勿論 古來로 知識은 尊重하였스나 支那 印度의 所謂 知識은 西洋流의 精確한 組織的인 論理的인 科學的 知識이 안이요, 專히 直覺的인 印象的인 詩的인 知識임이 明白하니, 東洋流의 此直覺的 知識에 比較하면 씨리사人이 尊重한 知識은 勿論 直覺的인 것을 包含하였슬지나, 如何한 것인가 하면 精緻한 確實한 系統的인 科學的인 知識이라. 後世 歐羅巴의 科學的 知識

은 實로 ㄱ리사人의 天才로 由하야 創造된 것이라 謂하지 안이하면 안이 될 지니, 精確하고 緻密한 自然科學은 ㄱ리사人의 天才로 由하야 비로소 確實히 基礎를 奠한 것이니라.

ㄱ리사人은 如何히 하야 此와 如한 天才를 具備하얏는가? 古來 歷史家의 解釋을 據하건대 古來 ㄱ리사人은 彼等의 先進國인 埃及이나 小亞細亞로부터 科學的 知識을 受한 것이라 하니, 果然 그 외 如한 事實도 有할지로되 精確한 科學的 知識은 畢竟 ㄱ리사人 獨特의 天才로부터 發生한 것이오 決코 模倣이나 繼承으로부터 發生한 것이 안이니, 卽 前段에 說明한 ㄱ리사人 獨特의 才幹—事物을 精確히 緻密히 觀察하야 此에 定形을 與한다는 根本精神은 一面으로는 藝術的 傾向이 되야 發達하고, 一面으로는 精密科學的 傾向이 되야 發現함이라 解釋하지 아니치 못할지며, 根本的으로 同一한 精緻的 特徵이 相異한 形質을 取하야 兩面으로 發達함이라. 解釋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ㄱ리사人은 到底히 精確하고 緻密한 才能을 具備한 民族이니라.